

- 주요 뉴스: 미국 트럼프, 한국 일본에 25% 관세 부과 통보. 유예 기한은 8/1일로 연장
 - EU, 미국과 원칙적 무역합의에 진전. 기본 관세율 인하 등이 목표
 - 독일 5월 산업생산, 예상치 상회. 자동차·제약 부문 호조 등에 기인
 - 일본 5월 실질임금, 20개월래 최대폭 하락. 소비주도 성장 저해할 가능성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트럼프 관세 서한 발송에 따른 무역협상 불확실성 재부각 등이 영향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무역간장 재고조, 차익매물 출회 등으로 하락
유로 Stoxx600지수는 對美 무역합의 진전 기대 등으로 0.4%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트럼프 관세 유예 기한 연장, 엔화 약세 등이 배경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6%, 1.1%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관세정책의 인플레이션 영향 우려 등으로 상승
독일은 양호한 5월 산업생산 등으로 4bp 상승

※ 뉴욕 1M NDF 증가 1373.0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375.5원, 0.56% 상승). 한국 CDS 강보합

		7/7일	7/4일	전일대비			7/7일	7/4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6,230.0	휴장	-0.79%	국채 금리 10y	미국	4.38%	휴장	+3bp
	유럽	543.50	541.13	+0.44%		독일	2.64%	2.61%	+4bp
	중국	3,473.1	3,472.3	+0.02%		영국	4.59%	4.55%	+3bp
	일본	39,588	39,811	-0.56%	CDS 5y	한국	26bp	26bp	+0bp
	한국	3,059.5	3,054.3	+0.17%		중국	49bp	48bp	+1bp
환율	달러지수	97.52	97.18	+0.35%	위험 지표	EMBI+	-	354	-
	유로화	1.1709	1.1778	-0.59%		VIX	17.79	17.48	+1.77%
	엔화	146.05	144.47	-1.08%		WTI유	67.93	휴장	+1.38%
	위안화	7.1762	7.1656	-0.15%	원자재	구리	498.5	휴장	-2.21%
	원화	1,367.8	1,362.3	-0.40%		금	3,336.5	3,337.2	-0.02%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트럼프, 한국·일본에 25% 관세 부과 통보. 유예 기한은 8/1일로 연장

-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보냈다고 발표. 이는 당초 7/9일 만료 예정이었던 관세 유예 기간을 8/1일까지 연장하면서도 구체적 관세율을 사전 통보한 조치. 일본의 경우 기존 24%에서 25%로 1%p 상향 조정되었고, 한국은 기존의 25%가 유지
- 말레이시아·카자흐스탄(25%), 남아프리카공화국(30%), 라오스·미얀마(40%) 등에도 관세를 일부 조정하여 서한 발송.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국가들이 보복관세를 부과하면 당초 제시한 관세에 보복관세를 더하여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 다만 시장을 개방하면 조정을 고려할 수 있다며 협상 여지도 제시
- 아울러 BRICS 회원국들이 反美 정책에 동조하면 추가로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강조. 한편, 베센트 재무장관은 향후 48시간 내에 여러 국가와의 무역합의 관련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 또한 트럼프 서한이 즉각적인 관세 부과 선언이 아니라 8/1일이라는 새로운 협상 마감일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설명
- 이번 서한은 트럼프가 약속한 신속한 무역협정 타결이 실패했다는 의미. 일부에서는 이번 조치가 또 다른 협상 기술의 일부에 불과하며(BMO Capital Market), 협상이 결국 타결될 것으로 전망(City Index). 반면 또 다른 일부에서는 단기간 내에 합의가 이루어져도 구체성 결여 등으로 높은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Morgan Stanley)
- 백악관은 이번에 발표된 상호관세는 자동차, 철강 및 알루미늄 등에 부과된 품목별 관세와는 별개로 적용된다고 설명.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서한이 상호관세 관련 협상 의지를 밝히면서도 자동차 등 개별품목에 대한 언급이 없었는데, 이는 해당 품목의 경우 관세 완화가 어렵다는 의미일 수 있다고 분석(ASPI)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연준 보고서, 제로금리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 Goldman Sachs는 9월 금리인하 예상

- 뉴욕 연은 및 샌프란시스코 연은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는 미래 금리 수준에 대한 예상치가 높지만, 불확실성 증가로 중장기적 제로금리 가능성이 상당한 수준. 한편 Goldman Sachs는 연준이 9월 금리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50% 이상이라고 분석하고,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보다 제한적이라고 설명

■ EU, 미국과 원칙적 무역합의에 진전. 기본 관세율 인하 등이 목표

- 유럽위원회는 7/9일까지 미국과의 원칙적 무역합의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발표. 對EU 50% 관세 현실화를 저지하고 기본 관세율을 10%까지 낮추는 것이 최우선 목표. 소식통에 따르면, EU는 미국으로부터 관세 인상 통지서를 받지 않을 것이며 미국과 합의에 근접한 상태
- 한편, 프랑스 중앙은행의 드 갈로 총재는 금리를 0%까지 인하하면 ECB는 양적완화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 마이너스 금리 보다 양적완화를 선호한다고 첨언

■ 독일 5월 산업생산, 예상치 상회. 자동차제약 부문 호조 등에 기인

- 5월 산업생산은 전월비 1.2% 늘어 전월(-1.6%) 대비 양호한 결과를 나타냈고, 예상치(0.5%)도 상회. 부문별로는 자동차, 제약 등이 호조. 이는 미국 기업들이 관세 부과 전 유럽産 제품의 구매를 확대한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추정

■ 중국, 해외 채권 투자 채널 확대 검토. 금융 제약 완화 의지 등이 반영

- 당국이 자국 투자자들의 해외 채권 투자 채널인 난상통(Southbound Bond Connect)을 현재 5천억 위안에서 1조 위안으로 두 배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이는 달러화 약세 시기를 활용해 금융 제한 완화와 위안화 국제적 매력도 제고를 위한 조치

■ 일본 5월 실질임금, 20개월래 최대폭 하락. 소비주도 성장 저해할 가능성

- 5월 실질임금은 전년동월비 2.9% 떨어져 전월(-2.0%) 대비 하락폭 심화. 이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0%인 반면 명목임금 상승률은 1.0%에 그쳐 임금과 물가의 격차가 지속되기 때문. 이러한 현상은 소비주도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

■ OPEC+, 8월 회의에서 일일 55만 배럴 추가 증산 승인할 가능성

- 소식통에 따르면, OPEC+는 8/3일 회의에서 9월 일일 55만 배럴 추가 증산을 승인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써 사우디·러시아 등 8개국의 자발적 감산이 완전히 종료될 전망. 이는 시장 점유율 회복과 트럼프의 증산 요구에 따른 결과로 추정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7/8 현지시각 기준)

- 미국 6월 소비자대인플레이션 및 중소기업 낙관지수, 독일 5월 무역수지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세계 경제, 라쇼몽 효과로 다양한 잠재적 시장 변동성 요인에 노출 - Financial Times

(The global economy is suffering from the Rashomon effect)

- 역사적으로 세계 경제는 시대를 대표하는 거대한 포괄적 정의로 서사. 역사적으로 중상주의, 자유방임주의, 케인즈주의, 레이건-대처 혁명과 신자유주의 시대가 차례로 발생. 하지만, 오늘날 세계는 ‘라쇼몽 효과(동일한 사건에 대해 관찰자마다 다르게 해석하거나 기억하는 현상)’가 만연. 일례로 미국 관세로 인한 글로벌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나, 근접 국가들의 교역은 증가하여 관련 피해는 국가별로 상이할 전망
- 기업 차원에서도 대기업과 소규모 기업은 충격 완화 정도에 따라 서로 다른 타격 예상. 또한 미국 예외주의와 유로화 대비 달러화 가치의 장기적 유지 견해도 긍정론과 부정론이 병존. AI 기술에 대해서도, 생산성 향상에 따른 주가 상승 혹은 일자리 감소에 따른 실업률 상승에 대한 의견이 상이. 동일한 경제적 변수에 다양한 해석들이 이어질 경우 향후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

■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인위적 금리인하 시도, 역효과를 초래할 우려 - 블룸버그

(America, This isn't how you lower interest rates)

- 트럼프 행정부는 연준 압박, 장기국채 발행 축소, 은행 자본규제 완화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금리를 낮추려고 시도. 그러나 이러한 연준 압박은 인플레이션 기대를 높여 장기 채권 금리의 상승을 유도하는 역효과 초래할 우려. 아울러 은행 자본규제 완화도 금리 위험 때문에 국채 매입 효과가 제한적
- 이에 금리를 효과적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재정건전성과 무역정책의 명확성 제고가 선결 과제. 또한 연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마라라고 협정’과 같은 발상은 폐기할 필요. 국채시장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요구

■ 미국의 국채시장의 안정 계획, 은행 여건 등을 고려 시 어려운 과제 - 블룸버그

(Weaker Banks Won't Stabilize the Treasury Market)

- 재정 불안 우려가 증폭되면서 국채시장 불안정도 심화. 당국은 은행권에 자본 규제 완화 및 국채 매입 확대 유도를 통한 문제 해결을 기대. 하지만 레버리지 비율이 높은 은행은 손실 증가 시 회복력 약화로 국채 매입 확대가 여의치 않을 소지
- 또한 미국 국채에 대한 시장 신뢰가 시험대에 놓인 현 상황에서 은행이 국채 보유를 확대할 명분이 부족. 일부 은행은 이미 국채 가격 하락에 따른 대규모의 미실현 손실에 직면. 국채시장 안정을 위한 확실한 대책은 예산적자 축소

■ **미국 트럼프의 차기 연준 의장 조기 지명, 연준의 정책 성과 저해할 우려 - 블룸버그**

(Trump Is Already Making the Next Fed Chair's Job Harder)

-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인하를 원하는 인물을 차기 연준 의장에 지명하겠다고 언급. 특히 백악관은 잘못된 정책에 우려를 표명하는 것은 수정헌법 1조에 따른 권리라고 주장. 하지만 이는 차기 의장이 지명되기도 전에 연준의 정책 입지를 약화시키고 신뢰성도 저해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
- 과거 폴 볼커 의장은 정치권의 압력에 맞서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강력한 정책을 시행했고, 이는 연준의 시장 신뢰 회복과 장기 물가안정의 토대를 마련. 이처럼 연준의 독립된 정책 결정이 더 나은 성과로 연결. 향후 연준의 신뢰는 차기 의장이 금리인하를 위한 합리적 틀을 제시할 것인지 여부가 좌우할 전망

■ **미국 트럼프의 무역합의, 신속한 결과 도출의 부작용 등으로 완성도는 부족 - 블룸버그**

(US Trade Deals Prove Too Complex for Trump's Fast Track)

■ **미국 트럼프의 세금법안, 부채 위기 모면에 기여했지만 재정 악화 심화시킬 소지 - Reuters**

(Trump tax bill averts one debt crisis but makes future financial woes worse)

■ **미국의 이민정책 변화, 성장 잠재력 저하 등 심각한 피해 초래할 우려 - Financial Times**

(US immigration shift may have profound economic consequences)

■ **역대 최고 수준의 미국 임차인 인구, 高금리와 높은 주택가격 여파 등에 기인 - WSJ**

(First-Time Home Buyers Are MIA. Landlords Are the Winn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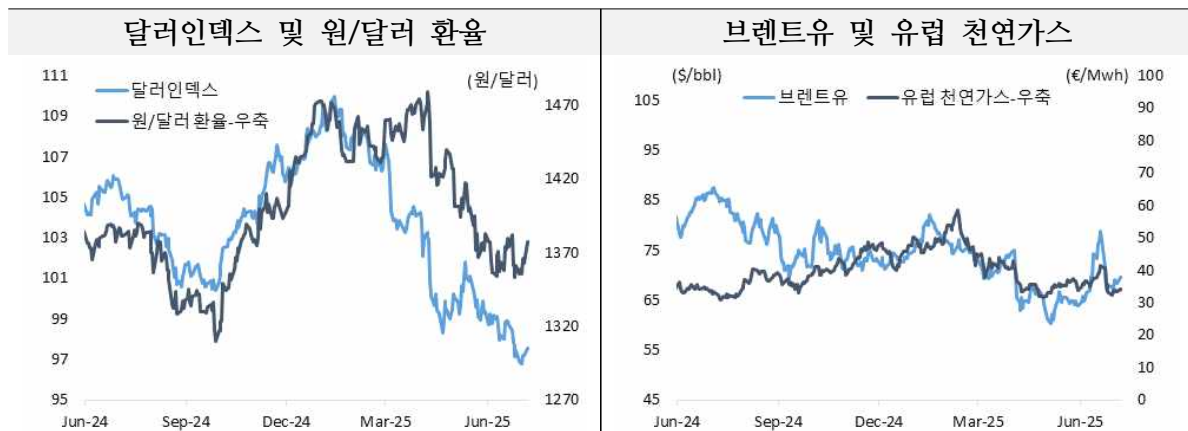
■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자국의 관련 기업에도 부정적 영향 야기할 가능성 - Reuters**

(China's rare earth export controls are good for Beijing, bad for busin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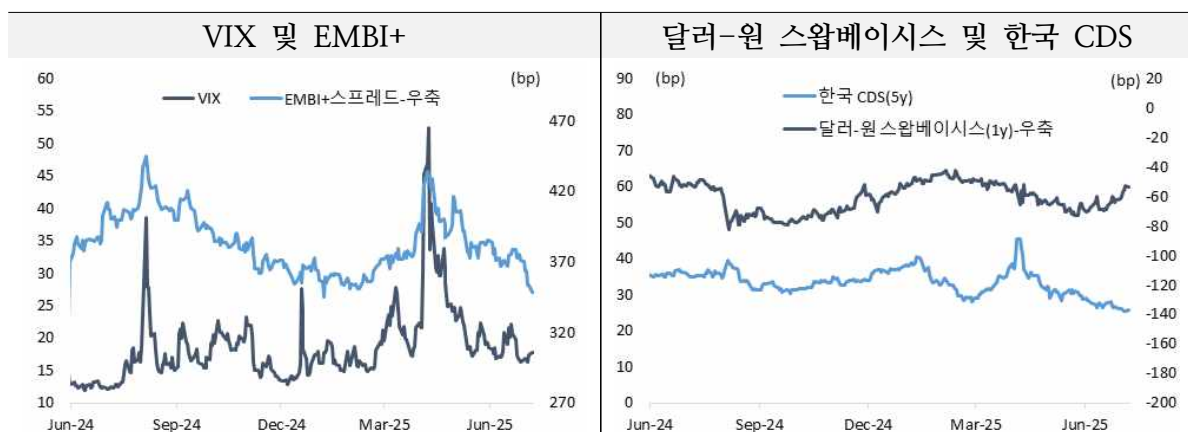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